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 특성 및 읽기 변인간의 관계 연구

우 정 한*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 영 모**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신 은 선***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요 약 》

읽기는 초기 학령기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등의 읽기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읽기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읽기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6학년의 다문화학생(36명)과 일반학생(45명), 총 8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다문화학생은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능력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는 서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읽기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듣기이해와 어휘지식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지도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읽기, 다문화학생, 읽기이해,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 제 1저자

** 교신저자 (navymedic@hanmail.net)

*** 공동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많은 아동들이 학령기에 이르렀고,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2012년 전체학생의 1.1%(33,740명)에서 2016년 2.8%(73,972명)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교육부, 2016), 새로운 학습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과 언어 문제, 학습부진 문제, 나아가 학교 부적응, 정서 및 행동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습의 경우 읽기의 어려움 및 읽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일반학생보다 단어인지의 어려움 및 눈에 띄게 낮은 읽기능력(우이구, 신은선, 김동규, 2017; 윤경동, 2011), 읽기 수행력의 저조(배소영, 김미배, 2010), 낮은 수준의 언어, 읽기 및 쓰기능력(강금화, 황보명, 2010) 등을 들 수 있다. 읽기는 학습의 기본적인 도구로, 읽기가 어려우면 학업성취가 어렵고 나아가 학습부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학령기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다. 다문화학생 중 약 26.6%가 학습부진학생이고, 학습부진의 비율이 일반학생의 2.5배에 달한다는 보도(연합뉴스, 2015)는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읽기(reading)는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학습의 측면에서 읽기는 국어과에서 언어기능을 대표하는 하위 영역이며, 언어지식을 이해하고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다(Mercer, Mercer & Pullen, 2011; Prater, 2007). 이러한 읽기는 크게 글을 바르게 읽는 해독/단어인지와 읽은 글을 이해하는 읽기이해로 구성되는데, Chall(1996)은 읽기발달의 단계에서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읽기이해라고 하였다.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란 글에서 제시되는 정보와 자신의 선행지식을 합쳐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Williams, 1998). 이러한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단어인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배경지식 및 읽기전략 등이 필요하다(김애화 외, 2010; 김용욱 외, 2016; Mercer, Mercer & Pullen, 2011). 이와 같은 기술들에 결함이 있다면 효과적인 읽기이해가 어렵고 결국 읽기능력 또한 부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읽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데, 다문화학생의 경우 일반학생에 비해 읽기의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연구는 단어인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읽기발달 단계로

볼 때, 단어인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 등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학생들이 이러한 읽기 영역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읽기유창성(reading fluency)은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또는 힘들이지 않고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Clark, 1995). 즉 읽기유창성은 정확성, 속도 및 표현력의 3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읽기 이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읽기이해능력을 예측하는 변인(김애화 외, 2012; 우정환, 김상선, 2010; Tilstra et al., 2009)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읽기유창성에 문제가 있다면, 글의 해독에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여 읽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의미의 단위인 단어수준의 이해, 문장수준의 이해 그리고 글 수준의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즉 글을 읽을 줄 알기 위해서는 어휘의 뜻을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어휘지식이 없으면 글의 중심내용을 알기 어렵다(한국 학습장애학회, 2014). 어휘는 대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범주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단위로, 낱말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김광해(1993)는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을 어휘지식(vocabulary knowledge)이라 정의하고, 이를 양적인 능력과 질적인 능력으로 구별하였다. 양적인 능력은 그 언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며, 질적인 능력은 각각 어휘소들의 의미 및 용법에 관한 이해와 구사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휘력은 읽기이해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오고 있다(김애화, 황민아, 2008; Anderson & Freebody, 1985; Cunningham & Stanovich, 1991; Nelson-Herber, 1986).

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란 들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즉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로, 들려오는 음성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분석, 종합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고도의 인지적 사고 작용이다. 이러한 듣기이해를 위한 듣기능력은 언어의 다른 영역인 말하기, 읽기, 쓰기에 앞서 발달하는 능력으로, 언어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입력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Krashen, 1982). 단순읽기모델(simple view of reading)에서는 음독과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를 약 40-80% 예측한다고 하면서(Dreyer & Katz, 1992),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이해에서 음독의 예측력이 줄어들고 듣기이해의 예측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Georgiou et al., 2009). 이와 같이 듣기이해는 읽기이해를 위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이해와 더불어 의사소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 구어기술이다. 구어기술

(oral language skill)이란 일상생활 속의 상황이나 장면들에 대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한 낱말이나 구문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영태, 2000; 이차숙, 2004; Erika, 2001). 이러한 구어기술의 발달 지체는 읽기능력 등 학령기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이기숙 외, 2011; 정부자, 2011; Bowey, 1986). 예를 들면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난독증 학생들은 말을 할 때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단어 및 구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며,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Mather & Wendling, 2012).

이상에서 읽기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인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읽기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효과적인 읽기지도에 대해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다문화학생이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능력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읽기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다문화학생의 읽기와 관련된 연구는 읽기능력 및 태도 관련 연구(윤준채, 2013; 이효인, 2012), 읽기와 언어 관련 연구(강금화, 황보명, 2010; 배소영, 김미배, 2010), 단어인지 및 하위 변인간의 관계 연구(우이구, 신은선, 김동규, 2017), 읽기유창성에 대한 연구(윤준채, 2012; 임예진, 2016; 심고우니, 2012), 어휘력에 대한 연구(김선정, 2009) 등이 있다. 따라서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과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다문화학생의 읽기지도에 필요하며, 읽기 관련 지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G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6학년의 다문화학생 36명과 일반학생 45명, 총 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단위: 명)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계
다문화학생	12(남 6, 여 6)	13(남 6, 여 7)	11(남 7, 여 4)	36(남 19, 여 17)
일반학생	15(남 7, 여 8)	15(남 8, 여 7)	15(남 7, 여 8)	45(남 22, 여 23)

다문화학생의 표집은 지역아동센터의 원장 또는 사회복지사 및 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읽기검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학생들의 어머니 국적은 베트남 26명, 중국 4명, 필리핀 3명, 일본 1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이다. 그리고 일반학생은 다문화학생과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로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며, 읽기검사에 동의한 학생들을 학년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집하였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학년군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은 저학년(1-2학년) 12명, 중학년(3-4학년) 13명, 고학년(5-6학년) 11명이고, 일반학생은 저, 중, 고학년 모두 각 15명씩이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구어기술, 듣기이해 및 읽기이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김용욱 등(2016)의 연구에서 개발된 “읽기학습특성 진단도구”의 5개 소검사(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읽기이해)를 사용하였다. 각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읽기유창성 검사

읽기유창성 검사는 텍스트를 정확하고 빨리 읽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학생이 제시된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시간(초)과 어절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어절 수에서 틀리게 읽은 어절수를 빼고 분당 어절수로 환산하였다. 글의 분량은 학년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차이를 두어 1학년 32어절에서 6학년 161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66이었다.

2) 어휘지식 검사

어휘지식 검사는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으로, 반대말과 비슷한 말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말 20문항과 비슷한 말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의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부사로 구성되었으며, 어휘의 음절수는 2음절에서 4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를 정확하게 말하면 1점, 틀리거나 무응답이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3) 듣기이해 검사

듣기이해 검사는 들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검사자가 글과 질문을 읽어주고 학생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글의 분량은 학년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차이를 두어 1학년 30어절에서 6학년 140어절 내외이고, 평가문항은 1-2학년은 5문항이고, 3-6학년은 7문항이다. 질문은 사실적 이해수준, 해석적 이해수준, 평가적 이해수준 및 감상적 이해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을 정확하게 말하면 1점, 틀리거나 무응답이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44였다.

4) 구어기술 검사

구어기술 검사는 들려주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뜻이 통하는 바른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이다. 검사 문항은 단문 8문항과 복문 12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6어절을 제시하여 뜻이 통하는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학생이 들려주는 단어들을 잘 연결하여 뜻이 통하는 바른 문장으로 말하면 1점, 뜻이 통하지 않거나 무응답이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5) 읽기이해 검사

읽기이해 검사는 읽은 내용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학생이 제시된 글을 읽고 검사자가 질문을 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 글의 분량은 학년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차이를 두어 1학년 30어절에서 6학년 140어절 내외이고, 평가문항은 1-2학년은 5문항이고, 3-6학년은 7문항이다. 질문은 사실적 이해수준, 해석적 이해수준, 평가적 이해수준 및 감상적 이해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을 정확하게 말하면 1점, 틀리거나 무응답이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69였다.

3. 연구절차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2016년 10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검사 장소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조용한 별도 공간으로, 검사는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자는 연구자와 D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생 1명으로, 이들은 평소 초등학교를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해 본 경험이 있으며, 검사실시전 검사도구 실시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검사 실시의 순서는 읽기유창성 → 어휘지식 → 듣기이해 → 구어기술 → 읽기이해의 순으로 하였고, 검사자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검사마다 지시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검사의 실시에 앞서 연습문항을 통해 연구대상 학생들이 검사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검사의 채점은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가 일차적으로 채점하고 이를 서로 교차하여 재확인 하였는데, 평정자간 일치도는 99%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검사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기준을 근거로 채점하였으며, 각 문항의 정반응은 1점, 오반응(무응답 포함)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의 문제별로 자료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산출한 결과로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읽기유창성은 학년별 어절수의 차이로 평균과 표준편차만 구함). 다음으로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일반학생, 다문화학생)과 학년군(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후속검정을 위해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인 읽기능력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 r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은 읽기이해력을 설명하는 읽기능력의 변인을 알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23.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능력 특성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능력 특성을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읽기유창성 특성

읽기유창성이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력 있게 읽는 능력으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읽기유창성 평균(표준편차)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67.37(20.73)	87.59(12.19)	100.80(10.32)	85.25(20.28)
다문화학생	47.98(22.18)	75.99(26.17)	85.00(25.96)	69.40(28.84)

읽기유창성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학생은 분당 평균 85.25어절을 읽는데 비하여 다문화학생은 분당 평균 69.40어절을 읽어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읽기유창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 중, 고학년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유창한 읽기능력을 보였는데, 일반학생은 중학년에서 약 87어절을 읽었으나, 다문화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약 85어절의 유창성을 보였다. 또한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학년의 증가에 따라 유창성이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학년에 따라 읽기유창성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일반 학생, 다문화학생)과 학년(저, 중, 고)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읽기유창성(분당 어절 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읽기유창성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4855.351	1	4855.351	12.155***	
학년	17014.94	2	8507.468	21.299***	저<중***, 저<고***
집단×학년	207.189	2	103.594	.259	
오차	29957.85	75	399.438		
합계	52240.97	80			

***p < .001

읽기유창성은 집단(F=12.155, p<.001)과 학년(F=21.29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259,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휘지식 특성

어휘지식은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전체 어휘지식 그리고 반대말 어휘지식과 비슷한 말 어휘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전체 어휘지식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전체 어휘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어휘지식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17.33(4.25)	22.73(6.19)	29.93(7.24)	22.33(7.24)
	43.33	56.83	74.83	58.33
다문화학생	10.33(5.25)	19.15(7.39)	20.18(5.46)	16.53(7.47)
	25.83	47.88	50.45	41.39

어휘지식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40문항 중 일반학생은 평균 22.33(58.33% 정답률)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평균 16.53(41.39% 정답률)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여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어휘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 중, 고학년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어휘지식을 보였는데, 다문화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일반학생 중학년보다 낮은 수준의 어휘지식을 보였다. 일반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지식이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저학년에 중학년까지는 약 2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학년에 고학년에 향상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어휘지식이 집단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휘지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전체 어휘지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916.182	1	916.182	29.101***	
학년	1686.996	2	843.498	26.793***	저<중***, 저<고***
집단×학년	127.502	2	63.751	2.025	
오차	2361.195	75	31.483		
합계	5183.284	80			

***p < .001

어휘지식은 집단(F=29.101, p<.001)과 학년(F=26.79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2.02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대말 어휘지식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반대말에 대한 어휘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6>과 같다.

<표 6> 반대말 어휘지식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13.40(2.38)	15.27(3.04)	17.27(1.22)	15.31(2.79)
	67.00	76.35	86.35	76.57
다문화학생	8.50(4.74)	13.77(3.72)	14.18(1.89)	12.14(4.44)
	42.50	68.85	70.90	60.75

반대말 어휘지식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20문항 중 일반학생은 평균 15.31 (76.57% 정답률)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평균 12.14(60.75% 정답률)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여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반대말 어휘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 중, 고학년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어휘지식을 보였다. 일반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중학년에 고학년에 올라가도 향상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대말 어휘지식이 집단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휘지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반대말 어휘지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199.292	1	199.292	22.032***	
학년	324.310	2	162.155	17.927***	저<중***, 저<고***
집단×학년	39.460	2	19.730	2.181	
오차	678.411	75	9.045		
합계	1231.210	80			

***p < .001

반대말의 어휘지식은 집단(F=22.032, p<.001)과 학년(F=17.92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2.18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슷한 말 어휘지식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비슷한 말에 대한 어휘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8>과 같다.

<표 8> 비슷한 말 어휘지식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3.93(2.99)	7.47(4.24)	12.67(3.77)	8.02(5.12)
	19.65	37.35	63.35	40.12
다문화학생	1.83(2.55)	5.38(5.06)	6.00(4.00)	4.39(4.34)
	9.15	26.90	30.00	22.02

비슷한 말 어휘지식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20문항 중 일반학생은 평균 8.02 (29.89% 정답률) 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평균 4.39(22.92% 정답률) 문항의 어휘지식을 보여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비슷한 말 어휘지식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어휘지식을 보였는데, 일반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은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향상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비슷한 말 어휘지식이 집단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휘지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비슷한 말 어휘지식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260.868	1	260.868	17.551***	
학년	543.894	2	271.947	18.297***	저<중***, 저<고***
집단×학년	90.667	2	45.334	3.050	
오차	1114.744	75	14.863		
합계	2077.556	80			

***p < .001

비슷한 말에 대한 어휘지식은 집단(F=17.551, p<.001)과 학년(F=18.29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3.05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듣기이해

들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듣기이해 능력에 대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10>과 같다.

<표 10> 듣기이해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2.93(.88)	3.80(.94)	4.60(1.45)	3.78(1.30)
	58.60	54.29	64.71	59.20
다문화학생	2.67(1.16)	3.15(1.21)	3.45(.82)	3.08(1.11)
	53.40	45.00	49.29	49.23

듣기이해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듣기이해 능력의 평균과 정답률은 저학년(5문항), 중학년(7문항) 및 고학년(7문항)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듣기이해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항수가 적은 저학년을 제외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듣기이해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일반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듣기이해 능력의 집단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듣기이해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듣기이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9.390	1	9.390	7.653**	
학년	19.700	2	9.850	8.028**	저<고***
집단×학년	2.522	2	1.261	1.028	
오차	92.020	75	1.227		
합계	126.173	80			

***p < .001

듣기이해는 집단(F=7.653, p<.001)과 학년(F=8.02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1.02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어기술

들려주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뜻이 통하는 바른 문장을 만드는 능력인 구어기술에 대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구어기술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14.47(3.46)	16.53(2.10)	18.47(1.41)	16.49(2.93)
	72.35	82.65	92.35	82.45
다문화학생	6.58(5.98)	12.62(6.48)	14.00(2.05)	11.03(6.11)
	32.90	63.10	70.00	55.15

구어기술 능력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저학년, 중학년 및 고학년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구어기술 평균과 정답률 모두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의 구어기술 능력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구어기술은 고학년이 되어도 일반학생의 저학년 구어기술보다 낮게 나타나, 다문화학생의 구어기술이 일반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년의 증가에 따른 구어기술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구어기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폭은 일반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어기술 능력의 집단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구어기술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두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구어기술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586.583	1	586.583	36.809***	
학년	452.826	2	226.413	14.208***	저<중**, 저<고***
집단×학년	61.933	2	30.967	1.943	
오차	1195.194	75	15.936		
합계	2278.691	80			

p < .01, *p < .001

구어기술은 집단(F=36.809, p<.001)과 학년(F=14.20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1.943,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읽기이해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읽기이해 능력에 대한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답률은 <표 14>와 같다.

<표 14> 읽기이해 평균(표준편차)과 정답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일반학생	2.87(1.41)	4.00(1.00)	4.93(1.44)	3.93(1.53)
	57.40	57.14	70.43	61.66
다문화학생	2.42(1.08)	2.62(1.04)	3.09(1.22)	2.69(1.12)
	48.40	37.43	44.14	43.32

읽기이해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읽기이해 능력의 평균과 정답률은 저학년(5문항), 중학년(7문항) 및 고학년(7문항)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이 다문화학생보다 읽기이해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항수가 적은 저학년을 제외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읽기이해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일반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읽기이해 능력이 집단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읽기이해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읽기이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검정
집단	29.968	1	29.968	20.145***	
학년	24.425	2	12.213	8.210***	저<중***, 저<고***
집단×학년	6.600	2	3.300	2.218	
오차	111.569	75	1.488		
합계	177.136	80			

***p < .001

읽기이해는 집단(F=20.145, p<.001)과 학년(F=8.21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F=2.21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후속검정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 및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

읽기능력의 변인인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 r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계수: 전체 학생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읽기이해
읽기유창성	1				
어휘지식	.662**	1			
듣기이해	.481**	.497**	1		
구어기술	.707**	.748**	.433**	1	
읽기이해	.545**	.608**	.772**	.535**	1

**p < .01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읽기이해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읽기이해는 듣기이해(.772)와 어휘지식(.608)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읽기유창성(.545)과 구어기술(.535)과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학생의 검사 결과를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결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17>, <표18>과 같다.

<표 17>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계수: 일반학생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읽기이해
읽기유창성	1				
어휘지식	.594**	1			
듣기이해	.451**	.476**	1		
구어기술	.678**	.641**	.437**	1	
읽기이해	.511**	.604**	.808**	.556**	1

**p < .01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읽기이해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읽기이해는 듣기이해(.808)와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휘지식(.604)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어기술(.556)과 읽기유창성(.511)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8>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계수: 다문화학생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읽기이해
읽기유창성	1				
어휘지식	.649**	1			
듣기이해	.456**	.400*	1		
구어기술	.663**	.770**	.375*	1	
읽기이해	.506**	.410*	.649**	.399*	1

*p < .05, **p < .01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읽기이해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읽기이해는 듣기이해(.649)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읽기유창성(.506), 어휘지식(.410), 구어기술(.399)과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 변인

전체학생의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의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읽기이해로, 상관계수 값을 바탕으로 독립변인을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전체학생의 읽기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B	SE	β	t	R	R ²	F
1	듣기이해	.937	.087	.772	10.800***	.772	.596	116.647***
2	듣기이해	.758	.092	.624	8.236***	.814	.663	76.646***
	어휘지식	.055	.014	.297	3.923***			

***p < .001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듣기이해와 어휘지식은 전체학생의 읽기이해를 설명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6.646, p<.001), 읽기이해에 대하여 약 66.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중에서 듣기이해(1모형)가 읽기이해에 대해 약 5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지식은 약 6.7%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전체학생의 검사 결과를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학생의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의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읽기이해로, 상관계수 값을 바탕으로 독립변인을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일반학생의 읽기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B	SE	β	t	R	R ²	F
1	듣기이해	.953	.106	.808	8.980***	.808	.652	80.647***
2	듣기이해	.794	.111	.672	7.172***	.845	.715	52.569***
	어휘지식	.060	.020	.284	3.028**			

p < .01, *p < .001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듣기이해와 어휘지식은 일반학생의 읽기이해를 설명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2.569, p<.001$), 읽기이해에 대하여 약 7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중에서 듣기이해(1모형)가 읽기이해에 대해 약 6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지식은 약 6.3%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의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읽기이해로, 상관계수 값을 바탕으로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	변인	B	SE	β	t	R	R ²	F
1	듣기이해	.693	.139	.649	4.972***	.649	.421	24.720***

***p < .001

읽기능력의 변인에서 듣기이해만이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를 설명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4.720, p<.001$), 읽기이해에 대하여 약 42.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이해 외에 다른 변인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읽기이해를 유의미하게 추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의 특성을 비교하고, 읽기능력 변인간 상관관계 및 읽기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변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생 36명과 일반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읽기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능력 특성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능력 특성을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영역에서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수행이 낮았다.

첫째,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읽기유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심고우니, 2012; 우현경, 2009)의 결과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저, 중, 고학년 간에도 일반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읽기유창성은 고학년이 되어야 일반학생의 중학년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확성, 속도 및 표현력의 3가지 요소를 아울러 일컫는 개념인 읽기유창성은 해독과 읽기이해의 다리 역할을 하므로 글 이해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우정환, 김상선, 2010; 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어 해독 기술에 기초하여 글을 정확하고 빨리 읽는 읽기유창성 지도가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학생의 어휘지식은 일반학생의 어휘지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혁, 박지윤(2009)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학년 간에도 다문화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다문화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일반학생 중학년 보다 낮은 수준의 어휘지식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를 연구한 유승애(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발달 속도가 일반가정 아동의 어휘발달 속도보다 늦다고 보고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을 살펴본 김선정(2009)의 연구에서는 특정 품사류에서 비교적 낮은 어휘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휘지식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의 및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읽기유창성의 증진과 더불어 읽기이해에 인지적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휘지식에 대한 지도 또한 저학년이나 취학 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듣기이해 능력은 일반학생의 듣기이해 능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경우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른 듣기이해 능력의 증가폭도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아라(2011)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고,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장애학생은 수용 및 표현어휘의 형태 및 구문의 사용과 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 Stanovich와 Siegel(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듣기이해력은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읽기이해를 위한 중요한 변인이다(Dreyer & Katz, 1992). 이러한 듣기이해 능력을 위해서는 말소리에 들어있는 어음체계를 인식하는 음운인식 능력이 필수적인데(Shaywitz, 2003; Uhry, 2005), 다문화학생의 경우 이러한 음운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보다 듣기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경우 언어와 읽기능력 및 듣기능력 발달을 위해 먼저 음운인식 능력이 연령에 맞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학생의 구어기술은 일반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일반학생 저학년 보다 낮은 구어기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미단(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장애학생은 일반학생보다 구어검사에서 유의하게 열등한 수준으로 수행하였다는 Catts와 동료들(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구어기술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어기술을 위해서는 음운인식, 듣기이해, 문법적 지식 등이 필요한데, 다문화학생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결함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구어기술 발달을 위해서는 음운인식의 지도와 더불어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 능력 또한 일반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읽기이해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일반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력이 일반학생보다 부족한 것은 읽기이해를 위한 해독, 유창성, 어휘, 듣기이해, 구어기술, 배경지식 및 읽기전략 등의 필요한 기술들이(김용욱 외, 2016; Cutting & Scarborough, 2006) 일반학생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읽기이해력 발달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읽기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

읽기능력의 비교에 기초하여 읽기능력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학생에게서 읽기이해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및 구어기술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읽기이해는 읽기능력 변인들 중에서도 듣기이해와 아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반학생은 읽기이해와 어휘지식, 읽기유창성, 구어기술이 보통 상관을 보였으나, 다문화학생의 경우 읽기이해와 읽기유창성이 보통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과 읽기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정환(2012)의 연구에서 읽기이해력은 듣기이해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읽기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김용욱 등(201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단순읽기모델에서 읽기이해를 음독과 듣기이해의 산물이라고 한 것과 같이(Hoover & Gough, 1990), 듣기이해는 읽기이해와 함께 언어이해력을 구성하는 요인이고, 읽기이해와

듣기이해는 공통적으로 정보를 기억, 분석, 추론, 종합하는 이해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우정한, 2012). 그리고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 읽기이해와 읽기유창성이 보통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읽기유창성은 읽기이해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용욱 외, 2016; 우정한, 2012; Mather & Wendling, 2012) 및 읽기유창성은 읽기이해의 좋은 예측변인이라는 선행연구(Chall, 1996)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일반학생의 경우 읽기이해는 어휘지식과 보통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어휘지식이 필요하고 어휘지식은 사고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더불어 일반학생의 경우 읽기이해는 구어기술과도 보통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애화 외, 2010; 우정한, 김상선, 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구어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읽기이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읽기는 언어활동으로 언어의 음운, 의미, 구문 및 화용적 측면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고(Lerner & Johns, 2009), 구어기술은 읽기를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읽기이해는 듣기이해, 읽기유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어휘지식 및 구어기술 등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효과적인 읽기이해력 지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읽기능력 변인들에 대한 지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 변인

읽기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능력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학생은 읽기이해에 대해 듣기이해와 어휘지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학생의 경우 읽기이해에 대해 듣기이해와 어휘지식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학생의 경우 듣기이해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듣기이해는 읽기이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능력 변인에서 낱말재인과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력을 약 72~85% 설명한다는 Hoover와 Gough(1990)의 연구, 그리고 약 75%를 설명한다는 Catts 등(200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듣기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읽기이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듣기는 말하기 및 읽기와 함께 통합된 언어체계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중에 결함이 있다면 읽기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욱 외, 2002; Lerner & Johns, 2009).

일반학생의 경우 읽기이해에 대해 듣기이해와 더불어 어휘지식 또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애화 외, 2010; 김용욱 외,

2016; 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Perfetti, 1991)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어휘지식이 있을 때 듣기이해와 읽기이해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듣기이해와 읽기이해 모두 내용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작업인데 여기에 어휘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에게서 읽기의 목적인 읽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이해에 대한 지도가 강조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읽기유창성과 어휘지식 등에 대한 읽기기술의 지도가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어기술에 대한 지도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36명과 일반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년군별(저, 중, 고학년) 읽기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이지만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의 많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듣기이해검사의 경우 신뢰도가 비교적 낮지만, 현재 국내의 경우 듣기이해검사가 별로 없고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읽기학습특성 진단도구”의 하위검사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듣기이해, 구어기술 및 읽기이해 등 읽기 변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의 읽기능력 발달을 위해 이들 변인을 포함한 읽기의 여러 변인들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금화, 황보명 (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43-158.
- 교육부 (2016). 2016 교육기본통계.
- 김광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선정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회** 40, 31-55.

- 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최승숙 (2012).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애화, 박성희 (2010). 일반초등학생과 읽기장애학생의 읽기유창성 특성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323-344.
- 김애화, 유현실, 황민아, 김의정, 고성룡 (2010). 초등학생의 읽기이해 능력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5(3), 357-380.
- 김애화, 황민아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1-25.
- 김영태 (2000).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의 타당도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35(2), 1-20.
- 김용욱, 우정환, 김영결, 김남진, 김윤옥 (2016). 난독증 진단도구 표준화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333-358.
- 박미단 (2009). 어휘지식과 구어처리 과제를 통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장애 예측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혁, 박지운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6, 393-423.
-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146-156.
- 심고우니 (2012).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 93-110.
- 연합뉴스 (2015). 다문화 초등생 4명 중 1명이 학습부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
- 우이구, 신은선, 김동규 (2017).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단어인지 특성 및 하위 변인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2), 199-222.
- 우정환(2012).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능력 특성 비교 및 읽기 하위 변인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291-312.
- 우정환, 김상선 (2010). 읽기장애학생의 언어능력과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163-183.
- 우현경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 23-36.
- 유승애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육아지원연구** 4, 51-67.
- 윤경동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준채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발달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8, 211-230.
-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2011). 만 5세 유아의 읽기능력, 어휘력과 개인, 환경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6), 123-139.
- 이차숙 (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 학지사.
- 임예진 (2016).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정부자 (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읽기능력 및 읽기관련 변인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치료연구**, 20(1), 103-121.
- 조아라 (2011). 한국어 어휘능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및 이해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국학습장애학회 (2014). **학습장애 총론: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입문서**. 서울: 학지사.
- Anderson, R. C., & Freebody, P. (1985). *Vocabulary Knowledge*. In H. Singer & R. B. Ruddell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Hillsdale, NJ: LEA.
- Bowey, J. A. (1986). Syntactic awareness in relation to reading skill and ongoing comprehension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1, 282-299.
- Catts, H. W., Fey, M. E., Zhang, X., & Tomblin, J. B. (1999). Language basis of reading and reading disabilitie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Scientific Studies in Reading*, 3, 331-361.
- Catts, H. W., Hogan, T. P., & Adlof, S. M. (2005). *Developmental changes in reading and reading disabilities*. In H. W. Catts & A. G. Kamhi (Eds.), *Connections between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Mahwah, NJ: Erlbaum.
- Chall, J. S. (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2nd ed)*. Fort Worth, TX: Harcourt-Brace.
- Clark, C. H. (1995). Teaching about reading: A fluency example. *Reading Horizon*, 35, 250-266.
- Cutting, L. E., & Scarborough, H. S. (2006). Prediction of reading comprehension: Relative contributions of word recognition, language proficiency, and other cognitive skills can depend on how comprehension is measured.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0, 277-299.
- Cunningham, A. E., & Stanovich, E. E. (1991) Tracking the unique effects of print exposure in children: Association with vocabulary, general knowledge, and spell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264-274.
- Dreyer, L. G., & Katz, L. (1992). An examination of "The simple view of reading". *National Reading Conference Yearbook*, 41, 169-175.
- Erika, H. (2001). *Language Development*.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 역, 2003,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Georgiou, G., Das, J. P., & Hayward, D. (2009). "Revisiting the "simple view of reading" in a group of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2, 76-84.
- Hoover, W A., Gough, P. B. (1990). The simple view of reading.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 127-160.
- Krashen, C. J.,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rner, J. W., & Johns, B. (2009). *Learning disabilities and related mild disabilities: Characteristic, teaching strategies, and new directions(11th)*. NY: Houghton Mifflin.
- Mather, N., & Wendling, B. J. (2012). *Essentials of dyslexia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J: Wiley & Sons.
- Mercer, C. D., Mercer, A. R., & Pullen, P. C. (2011). *Teaching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Nelson-Herber, J. (1986). Expanding and refining vocabulary in context areas. *Journal of Reading, 5*, 24-41.
- Prater, M. A. (2007). *Teaching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mild to moderate disabilities*.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Perfetti, C. A. (1991). *Representations and awareness in the acquisition of reading competence*. In L. Rieben & C. A. Perfetti (Eds), *Learning to read: Basic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pp. 33-44). Hillsdale, NJ: Erlbaum.
- Shaywitz, S. E. (2003). *Overcoming Dyslexia: A new and complete science-based program for reading problems at any level*. NY: Random House.
- Stanovich, K. E., & Siegel, L. S. (1994). The phenotypic performance profile of reading-disabled children: A regression-based test of the phonological-core variable-difference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24-53.
- Tilstra, J., McMaster, K., Van den Broek, P., Kendeou, P., & Rapp, D. (2009). Simple but complex: Components of the simple view of reading across grade level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2*, 383-401.
- Uhry, J. K., & Clark, D. B. (2005). *Dyslexia: Theory and practice of instruction (3rd ed)*. Austin, TX: PRO-ED.
- Williams, J. P. (1998). "Improving comprehension of disabled readers". *Annals of Dyslexia, 48*, 213-23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and Relations of Reading Variables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Woo, Jeong Han

Daegu Cyber University

Kim, Young Mo

Daegu University

Shin, Eun Sun

Daegu University

<Abstract>

Reading is one of the fundamental and critical abilities that young school-age children should acquire. However, in general, multicultural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reading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fluency, vocabulary knowledge, oral language skill,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Second, to know about the correlation of reading ability variables of student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Third, to know about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reading comprehension. For this study, 84 elementary school students(36 multicultural students and 45 general students) were employed and tested by reading fluency, vocabulary knowledge, speaking skill, and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 data analysis method were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were lower than general students in reading fluency, vocabulary knowledge, oral language skill,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reading fluency, vocabulary knowledge, listening comprehension, oral language skill and reading comprehens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Third, the influenceable variables for reading comprehension were listening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knowledg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teaching reading to multicultural students.

Key Words

: reading, multicultural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fluency,
vocabulary knowledge, listening comprehension, oral language skill

논문 접수: 2017. 09. 18 심사 시작: 2017. 09. 18 게재 확정: 2017. 10. 25